
 금융위원회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금융감독원
	보도	배포시	배포	2019.3.4.(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02-2100-2530)	담 당 자	최 민 혁 사무관(02-2100-2534) 이 윤 아 주무관(02-2100-2537)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전 요 섭(02-2100-2950)		서 지 은 사무관(02-2100-2954)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하 주 식(02-2100-2960)		현 지 은 사무관(02-2100-2962)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02-2100-2990)		최 미 영 사무관(02-2100-2994) 이 지 호 사무관(02-2100-2983)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장 전 길 수(02-3145-7420)		정 기 영 부국장(02-3145-7415)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장 경 운(02-3145-7120)		김 용 태 부국장(02-3145-7125)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무국장 황 인 덕(070-4481-9002)		김 세 진 팀 장(070-8873-9005)		

제 목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규)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

-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5개사), 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3.4~5.7) -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18.5~)**
-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4일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직접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1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 경과

□ **(신청현황)**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8.10.26~11.26)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 이중 2개사는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으로서, 협업관계 금융회사 변경 및 서비스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추가 신청
-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사업계획 보완 후 재신청 등의 사유로 신청을 자진 철회

구 분	내 용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 지정대리인과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복신청한 상황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신청에 전념 (1개사)
철회 후 재신청 추진	- 금융회사와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자진철회, 추가서류 준비 통해 3차에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 (3개사)

□ **(우선심사)**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Fast Track**을 통해 우선심사*

*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 자문단 자문 → 심사위원회 심사)하나, Fast Track의 경우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2개사*를 **Fast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 지정통보 완료(1.18)

* **빅밸류**(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피노텍**(대환대출) / '19.1.23일 보도자료 참고

□ **(일반심사)** Fast Track 지정된 2개사, 철회한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에 대해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2.27)

* (구성) 금융위 사무처장(長),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통지(3.4)

2 지정대리인 심사 결과

※ 상세 내용 별첨

□ 금융위원회는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3.4)

○ 미지정된 4건은 지정대리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신청 절차 등 개별 안내

- ◆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
→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 승인 불가
-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는 관련 규제특례 가능하여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혁신성 있는 경우 승인 가능

□ 지정대리인 지정된 5건은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AI,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례

<제2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핀테크 기업	매칭 금융회사	기술 분야	서비스 내용	심사 결과
비바리퍼블리카	SC은행	온라인 플랫폼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 신청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휴 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	지정
팝펀딩	기업은행	온라인 플랫폼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 시스템 운영	지정
마인즈랩	현대해상	인슈테크	음성봇을 통해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및 보험 계약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지정
핑거	NH중양회(상호금융)	빅데이터·AI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하여 「대출 심사」 절차를 최소화 하면서도 심사 일관성 제고 및 심사정보 고도화	지정
크레파스 솔루션	신한카드	빅데이터·AI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수행	지정

* 「」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지정대리인인 핀테크 기업에 위탁

3 향후 계획

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

○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예상

-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 가능

* 핀테크기업 등에 각종 인·허가 및 규제가 면제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 혁신 테스트는 '성공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

②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자체 홍보 가능 → 투자유치, 인지도 상승 효과 기대

○ 다만, 해당 서비스의 사업모델, 수익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

③ 한편, 테스트비용 직접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의 사업 고도화(Scale-up)를 지원 예정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예산 총 40억원

4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

-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공지(1.23)
- 기공지된 바와 같이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구분	신청 기간	검토 기간	지정시기
3차	'19.3.4(월) ~ 5.7(화)	5.8(수) ~ 7월초	7월초
4차	8.1(목) ~ 10.1(화)	10.2(수) ~ 12월초	12월초
5차	'20.1.2(목) ~ 3.2(월)	3.3(화) ~ 5월초	5월초

-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개시
 -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에 근거가 마련*되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 확대
- * (지정대리인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 운영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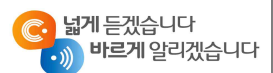
- ◆ 신청 예정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 개최 예정
 - (일시/장소) '19.3.12일(화) 10:00,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 세미나실1
- ◆ 설명회와 별개로 핀테크 기업 지원 T/F가 유선으로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상시상담 ☎ 070-8872-9004, 070-8873-9005)
-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상담코너 및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korfin.kr) 문의사항코너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

* <별첨>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문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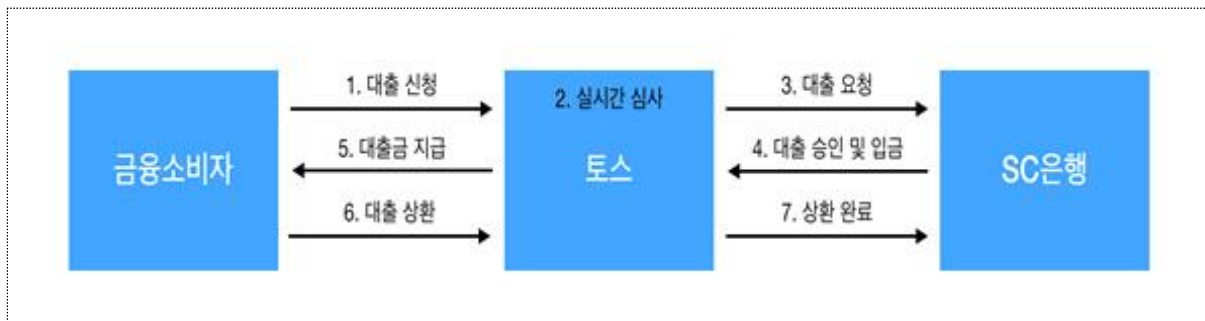
1. 비바리퍼블리카(토스)-SC은행

□ 토스는 유저의 금융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소액·신용·단기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SC은행과 제공

→ 고객에게 간편한 소액대출 경험을 제공하고, 토스 유저*의 풍부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여신 리스크 최소화 가능

* 토스 가입자 1,100만 이상, 대한민국 20대 60% 이상 사용

** 송금, 계좌·카드 조회, 자동저축, 더치페이, 공동계좌, 부동산·펀드 소액투자



❶ (혁신성) 토스가 보유중인 계좌, 카드, 투자 등 플랫폼 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신용평가를 진행

-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특히 증빙 서류 제출 부담도 경감
-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금융소비자*들도 토스의 보유 정보를 통해 섬세한 신용평가 가능

* 소득증빙이 곤란한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 플랫폼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❷ (소비자 혜택) 금융거래 정보 부족 등으로 기존에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소외계층들의 금융접근성 제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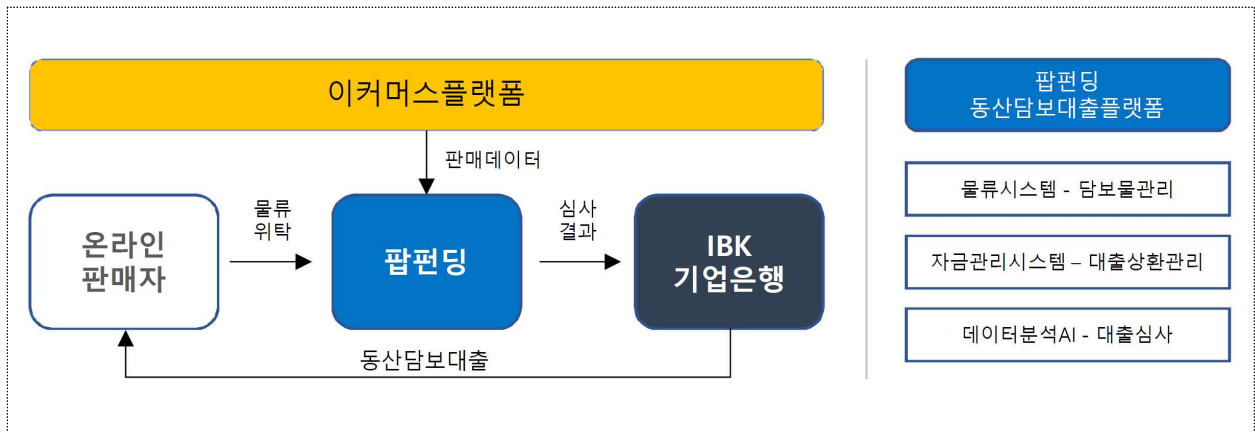
※ 금융거래가 거의 없어 관련 서류가 얇은 고객들(Thin Filer, 주로 20대 초반 청년층)에 대한 신규대출 및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

❸ (시범운영 대상) 이용금액 한도는 인당 5~100만원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총 대출금액은 50억원 이하로 운영, 이용자 10,000명 예상

2. 팝펀딩-IBK기업은행

□ 팝펀딩(기업금융 P2P업체)은 e-커머스 판매데이터를 분석하여 온라인 소상공인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기업은행과 제공

→ 운영자금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재고자산을 담보로 은행권 중금리 동산담보대출 실시



❶ (혁신성) 물류시스템을 통해 재고 상황 및 e-커머스 플랫폼과 연동한 판매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동산담보대출 심사·관리 기술을 적용 (→ 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동산담보대출)

- 보다 전문적으로 담보물(재고) 관리가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 및 대출상환 등 사후관리도 용이

※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기업(P2P업체)의 협력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낮은 금리(중금리)로 대출하는 신시장 개척

❷ (소비자 혜택) 개인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 e-커머스 판매자들에게 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접근성 개선

- 기존 동산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중에도 재고(담보물) 판매가 가능하고 同 매출로 상환도 할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 효과 발생

* 대출 상환 전에는 출고 불가능

❸ (시범운영 대상) 이용금액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용업체 100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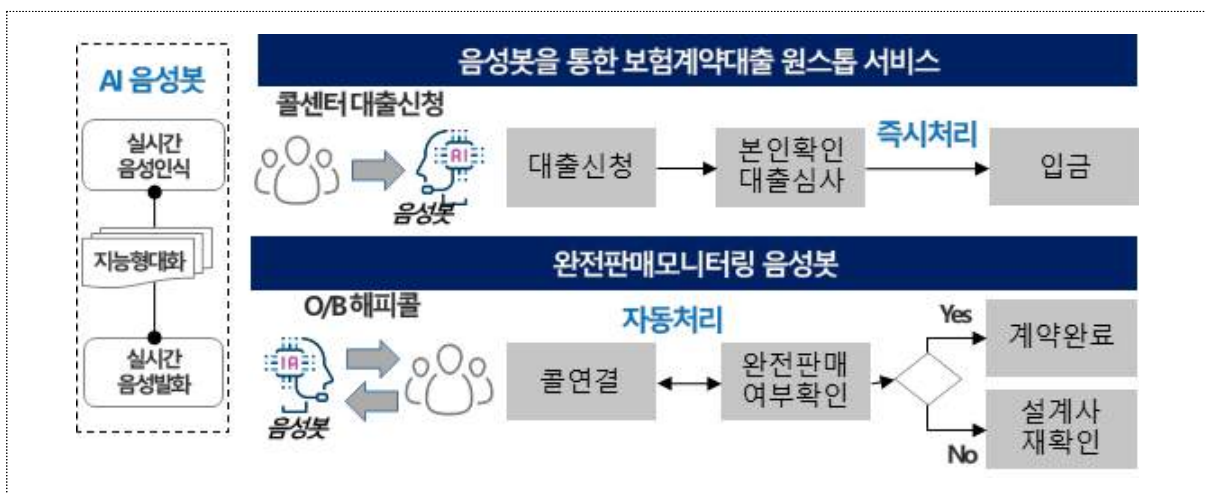
3. 마인즈랩 - 현대해상

- AI 음성지능, 지능형 대화기술을 접목한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 계약대출 서비스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수행

* 2017년 ITU텔레콤월드 '우수' 기업 선정

2019년 제18회 대한민국 SW 기업역량강화부문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 콜센터의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음성봇을 통해 24시간 운영 하며, 대출신청 및 심사를 원스톱으로 처리
- 기존 수작업의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자동화해 각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AI 상담사가 다수·동시상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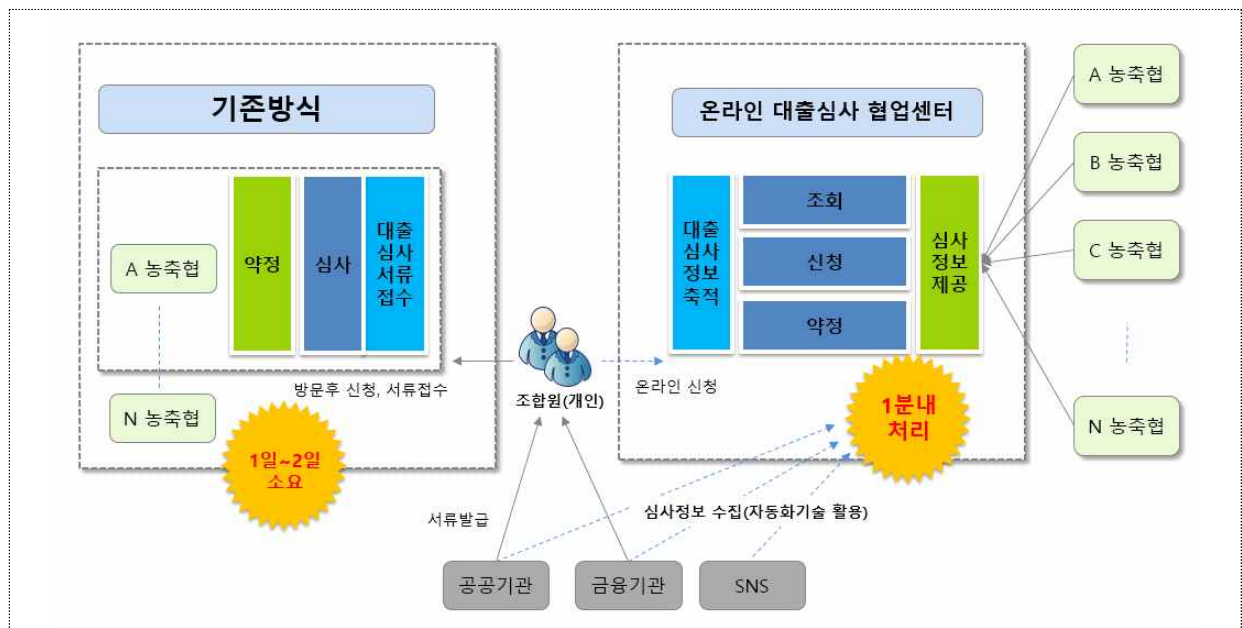


*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는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므로, 지정대리인 지정없이 가능

- ❶ **(혁신성)** 인공지능 음성인식-대화-음성합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 보유 → 365일 24시간 원스톱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 ❷ **(소비자 혜택)** 모바일 거래 등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 또는 직장인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편리한 보험계약대출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❸ **(시범운영 대상)** 보험계약대출(개별 100만원 미만) 600건/월, 완전 판매 모니터링 300건/월

4. 핑거-NH상호금융

- 온라인 정보제공회사인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 안전하게 수집·처리하여 데이터 집중관리가 어려운 지역 농축협 조합에 온라인으로 제공
 - 신용대출 심사는 일반적으로 2영업일 소요되나 동 시스템으로 수분 내 처리 가능
 - 핀테크 인프라를 통해 신속·정확한 심사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대출 이용자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서류 번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① **(혁신성)**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축협 조합의 대출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

* 금융·공공·SNS 데이터 등

-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심사진행 가능

- ② **(소비자 혜택)** 비재무적 정보까지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재무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고객의 대출 이용가능성 향상

- 금융회사도 대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절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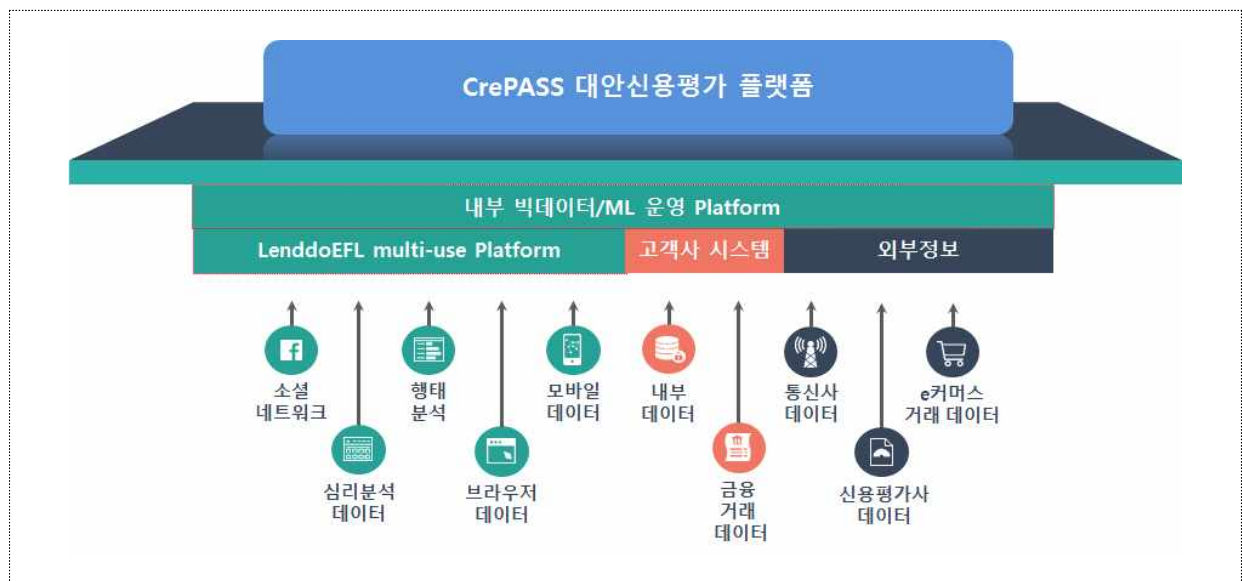
- ③ **(시범운영 대상)** 대출 월 1,000명(개별 1천만원, 전체 20억원 이하)

5.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

-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회사인 크레파스솔루션은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고객*의 비금융 빅데이터(통신, Mobile, SNS)를 활용하여 대출 및 카드발급심사 업무 협업

* 해외 파견국에서의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내국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해외 현지인, 귀국 후 해외 거주로 인해 금융거래기록에 단절이 있는 내국인, 국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외국인 거주자 등

- 금융거래가 부족하여 금융서비스 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게 추가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알고리즘이 있는 AI플랫폼 서비스 제공



- ① **(혁신성)** SNS 등 비금융 빅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 알고리즘 등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대출 및 카드발급심사 수행
- ② **(소비자 혜택)**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대출/카드발급이 거절되던 고객들(Thin Filer)의 금융이용 기회 대폭 확대
- ③ **(시범운영 대상)** 대출 및 카드발급심사를 20,000명(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유학생 등) 이내에서 추진

※ 연락처

기업명	담당자	연락처
비바리퍼블리카	신찬 실장	010-5066-0828 / cshin@toss.im
팝펀딩	김성욱 이사	010-9500-2288 / wookie@popfunding.com
마인즈랩	김동수 전무	010-3564-4110 / dskim@mindslab.ai
핑거	윤상헌 이사	010-4557-3882 / yoons@finger.co.kr
크레파스솔루션	박학수 이사	02-780-8081 / haksoo.park@crepass.com

①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

* 지정대리인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신청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 금산분리, 전업주의 원칙 등 금융질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심사할 예정

②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 → 지정

- (심사주체) 민·관 합동의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당연직) 사무처장(심사위원회 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국장 (위촉직) 금융, IT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4인 이내

- 심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단*과 전문가 자문단이 실무검토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심사위에 제시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 금융위 및 금감원의 핀테크 담당 부서 및 각 업권 부서로 구성

- (심사기준) ①서비스 지역, ②혁신성, ③소비자 혜택, ④불가피성, ⑤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

- ① 지정대리인 신청기업이 국내에서 주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 ②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에 비해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 ③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 ④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 가능한지
- ⑤ 지정대리인 신청기업이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 특히, ⑤와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관계 구축 여부, 실제 테스트까지 걸리는 (예상)기간, 소비자 피해 예방 계획, 시범운영을 위한 자금·인력·설비 구비 계획 등을 심사할 예정

③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통상적인 업무위탁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가 업무위탁 사실 보고(금감원) 및 핀테크 기업과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업무위수탁 계약 내용에 위탁 대상 업무, 테스트 기간, 테스트 대상 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테스트 계획 등을 포함
 -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각 금융업법에서 금융업의 영위를 위해 인·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위탁

※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사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 ☐ (은행) 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 등
- ☐ (보험) 보험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변경·해지·부활처리,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
- ☐ (여전)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신용카드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등

④ 시범 운영(테스트) 실시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2년) 내에 테스트를 진행

⑤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필요조치 시행

- 금융위·금감원은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지정 대리인 지정 취소·철회(심사위원회), 업무 변경 권고(금감원) 등 조치

참고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제도현황

1. 혁신금융서비스

※ 핀테크기업/금융회사 → 금융위 승인 → 자체 영업

- (개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특례 부여(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근거)

□ 진행사항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 이전인 '19.1월중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 진행 → 4월중 지정 추진

* 사전신청된 105건 중 40여건을 우선심사 후보로 선정하여 이 중 20여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확정 예정

2. 지정대리인

※ 핀테크기업 → 금융위 승인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위탁

- (개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고,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 (지정대리인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진행사항

- (1차) 12건 접수('18.5~6) → 9건 지정(9.14)*

* 2건 지정없이도 수행가능, 1건 철회

- (2차) 15건 접수('18.10~11) → 7건 지정(Fast Track 2, '19.1.18 / 일반 5, 3.4)*

* 4건 철회, 4건 미지정

3. 위탁테스트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에 업무위탁 (금융위 승인 ×)

- (개요)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기존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테스트 실시*

* (위탁테스트 근거) 법적 근거 없었으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마련되는 고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근거규정 신설

□ 진행사항

- (1차) 17건 접수('17.10~'17.11) → 7건 테스트 완료, 1건 진행 중

- (2차) 15건 접수('18.10.15~11.13) → 7건 테스트 진행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제도의 관계

-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제도는 법적 근거, 지정 효과 등에서 구분
-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 받아 핀테크기업이 가진 아이디어 등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 *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특례가 부여되는 샌드박스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
 - 각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제도 운영하되,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병행 운영 예정
 - * (예시1)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반해 샌드박스는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샌드박스는 업력, 규모가 보다 큰 핀테크기업의 신청이 유리
 - (예시2) 기존 금융회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지정대리인 신청
 - 단, 중복신청 등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업무 수탁자)과 혁신사업자(서비스 주체)로서의 법적지위가 중복할 경우,
 - 사업자가 두 제도의 병행 또는 집중 여부 등을 자율적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정대리인 vs. 혁신금융서비스 비교 >

구 분	지정대리인	혁신금융서비스
법적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지정의 효과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능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을 허용(위탁계약 체결 필요)	규제의 특례 (인허가, 등록, 신고, 업무범위 등 금융규제의 특례인정)
금융회사와의 관계	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	핀테크기업의 독자적 운영 가능
효력 기간	2년	2년 + 연장 2년 가능
만료 시	금융업법에 따른 개별 인허가 (필요시 혁신금융서비스로 독자 운영)	금융업법에 따른 개별 인허가

* 지정대리인 제도의 근거 : 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에 마련